

K-스타트업, 美 시장 ‘노크’... 엔비디아 등 큰손들도 ‘관심’

중기부 ‘초격차 스타트업 IR’

美 실리콘밸리서 현지진출 지원 VC·CVC 등 대상 IR피칭 진행 ‘UKF 82스타트업 서밋’도 개최

중소벤처기업부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국내 스타트업들의 현지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열었다. 현지 대형벤처캐피탈(VC)들과 ‘K-스타트업’에 대한 투자협력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

12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10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시스템반도체 등의 신산업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한 초격차 딥테크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개최됐다. 같은 날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도 열렸다.

초격차 스타트업 IR 행사는 엔비디아(NVIDIA) 등 글로벌 대기업과 VC, 기업형벤처캐피탈(CVC), 미국주정부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5’를 방문해 ‘K-스타트업 통관관’을 둘러보며 참석기업 대표를 격려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중기부

기관 등을 대상으로 초격차 스타트업의 IR 피칭과 네트워킹 등을 진행하는 ‘실리콘밸리 IR 데모데이’ 행사와 13일(현지시간) 예정한 미국 AI 개발자들이 밀집돼 있는 ‘세레브럴 밸리’의 우수 AI

스타트업과 초격차 스타트업이 만나 기술 교류와 협업을 논의하는 ‘세레브럴 AI 밋업’ 행사로 꾸러졌다.

IR 행사에는 엔비디아, 구글, HP, 보잉 등 글로벌 대기업 임직원과 모태펀

드 운영사 SOSV 등 투자자, 기술 에이전트 등 100여명이 자리해 한국의 혁신적인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강한 관심을 표명했다.

중기부 김성섭 차관은 행사 이후 플러그앤플레이 테크 센터 등 미국 현지 액셀러레이터(AC)에 입주하거나 서비스를 지원 받아 미국 시장에 진출한 위트젠바이오테크놀로지 등 한국 스타트업과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시장 진출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의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에 대해 논의했다.

김 차관은 “한국 정부는 높은 기술과 혁신성을 보유한 딥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면서 “초격차 스타트업은 한국 정부가 지원하고 보증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딥테크 스타트업으로, 행사에 참석한 글로벌 투자기관 등에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열린 ‘UKF 82스타트업 서밋

2025’는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 및 스타트업이 모인 민간 단체 UKF가 주최한 행사로, 중기부는 행사 개최 및 국내 스타트업의 IR 참여 등을 지원하며 후원기관으로 협력했다.

‘82 스타트업’은 한국의 국가 전화번호인 ‘82’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미국 내 한인 벤처투자자와 스타트업이 상호 협력하기 위해 만든 모임이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중기부는 UKF를 비롯해 미국에서 한인 창업자와 벤처투자자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미국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등 전세계 주요국가에서도 한인 벤처·스타트업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글로벌 투자네트워크와 연결되도록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지난 9일엔 세계 정상급 연구기관인 스탠포드대학교 산하 연구소인 SRI도 방문해 벤처투자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中企 익스프레스 핫라인’ 본격 운영·접수

중기중앙회-기재부 합동

소상공인 현장규제·애로 신속해결 건의 처리 투명 확인, 30일내 회신

‘중소기업이 묻고 정부가 답한다.’

중소기업계가 기업 현장의 애로·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경제정책 총괄부처와 온라인으로 핫라인을 만들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

기존에 분기당 1회씩 오프라인으로 개최하던 간담회를 온라인으로 365일, 24시간 소통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플랫폼으로 구축하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기획재정부와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규제와 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본격 운영하고 접수를 시작한다고 12일 밝혔다.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민관합동 온라인 플랫폼으로, 이를 통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제안한 건의서 처리 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왼쪽)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최상목 경제부총리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고 정부 부처 관계자는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2월 26일 경제부총리로서 중기중앙회와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오늘 가동하는 중기 익스프레스 핫라인은 건의 기업이

검토 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부 담당자를 공개하고, 30일 내에 검토 결과를 회신할 수 있도록 신속한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정부는 경제단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현장 밀착형 제도 개선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기중앙회와 기재부는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의식을 같이 하고 지난해 중기 익스프레스 회의를 대전·세종·충남(2월5일)을 시작으로 영남권(4월18일), 수도권(8월29일)에서 각각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회의가 분기별 1회씩으로 소통 기회가 한정적이고, 회의 참석 중소기업인의 목소리만 반영하는데다 답변을 받는 데 오랜 기간이 걸리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가동하게 된 것이다. /김승호 기자

중진공, 중소기업에 단기유동성 공급

팩토링 사업·네트워크론 시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중소기업의 거래안정감을 강화하기 위한 단기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중소기업 매출채권팩토링’ 사업 접수를 시작했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생산과 안정적인 납품을 촉진하고 대·중견·중소기업 간 공급망 안정화 및 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동반성장 네트워크론’도 시행한다.

12일 중진공에 따르면 매출채권팩토링 사업(팩토링 사업)은 중진공이 판매기업의 매출채권을 인수해 자금을 공급하고, 구매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 대금을 회수하는 구조다.

팩토링 사업 신청대상은 최근 3개년 결산재무제표, 구매기업과 1년 이상 거래 실적(최근 1년 내 3회 이상 거래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대상채권은 중소기업이 제품 등을 공급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으로, 신청일 기준 62일 이내에 발행한 전자세금

계산서다.

팩토링 지원기간은 결제기일 등을 고려해 30일에서 90일 내 신청기업이 15일 단위로 선택할 수 있다.

2025년 팩토링 지원예산은 590억원이며 기업당 최근 결산재무제표 상 매출액의 3분의1 이내(제조업 2분의1이내) 한도로 연간 10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모든 신청절차는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동반성장 네트워크론은 동반성장 의지가 강한 대기업·중견기업·우량중소기업(발주기업)과 중진공이 무협약을 체결하고, 협력 중소기업에 발주서를 근거로 생산자금을 대출한 후 발주기업으로부터 납품 대금을 중진공이 지급받아 상환되는 구조로 운영한다.

특히, 중진공의 기존 정책자금 지원 방식과는 차별화된 공급망 연계 금융으로서, 발주서를 기반으로 단기·저리의 생산자금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김승호 기자

현대L&C, 인테리어 트렌드 ‘굿 무드’ 제시

마음의 안녕, 기분좋은 상태 의미

현대L&C가 올해 인테리어 트렌드로 ‘굿 무드(GOOD MOOD)’를 제시했다.

12일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건자재 기업 현대L&C에 따르면 인테리어 트렌드 세미나 ‘인트렌드(Intrend) 2025·2026’에서 마음의 안녕과 건강을 위한 기분 좋은 상태를 의미하는 ‘굿 무드’를 트렌드로 제시했다.

인트렌드 세미나는 현대L&C가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 최신 라이프스타일과 디자인 트렌드 정보를 공유한다. 세미나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온라인을 통해 진행됐으

며 건축 및 인테리어 업계 전문가·학계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거시 트렌드, 마감재 트렌드, 제품군별 건자재 트렌드 등 3부로 진행했다. 1부에서는 ▲자연과 공존하는 노르딕 라이프 ‘노르딕 캐빈’ ▲럭셔리 라이프 큐레이팅 ‘슈퍼 하이’ ▲몸과 마음의 기쁨 ‘조이-코노미’ 등 총 3가지 사회적 트렌드를 제시했다. 2부에서는 이들 트렌드가 마감재의 색상·소재 등의 측면에서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분석해 소개했다. 3부에서는 인테리어 스톤·필름 마감재·벽지 등 각 제품군별 트렌드와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선별한 ‘올해의 머티리얼 2025’를 각각 소개했다. /김승호 기자

공영흡소핑 농축수산물 할인 이벤트

공영흡소핑이 설 명절을 맞아 우리 중소기업 상품과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이벤트를 진행한다.

12일 공영흡소핑에 따르면 이달 24일까지 같은 상품을 여러 개 주문하면 할인 받을 수 있는 ‘마음을 보내세요’ 행사가 열린다.

2개 구매 시 5%, 3개 혹은 4개 구매 시 10%, 5개 이상 구매 시 15%를 즉시 할인 받을 수 있다. 방송 상품을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물을 통해 구매하면 된다. 구매한 상품은 주문 시 각각 다른 주소를 지정해 배송할 수 있다.

31일까지 펼쳐지는 ‘2025 새해 적립이오’ 이벤트를 통해 적립금도 받을 수 있다. /김승호 기자

코웨이, 30평형 ‘노블 공기청정기2’ 출시

기존제품 대비 35% 작아져

코웨이가 작아진 크기에 강력한 청정 성능과 스마트한 기능으로 재탄생한 30평형급 ‘노블 공기청정기2 (100㎡)’ (사진)를 출시했다.

코웨이 노블 공기청정기는 지난 2021년 출시 이후 건축학적 아키텍처 디자인과 혁신적인 청정 성능으로 프리미엄 공기청정기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코웨이 대표 제품이다.

신제품은 코웨이만의 혁신적 청정 기술로 기존 제품 대비 약 35% 작아진 크기에 30평형의 청정 성능을 구현했다. 넓은 공간을 관리하는 대용량 공기청정 기임에도 불구하고 작아진 사이즈로 활



용성을 높여 다양한 공간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한 단계 진화한 ‘상하 4D 입체 청정 시스템’을 탑재해 더 빠르고 강력해진 청정 성능도 자랑한다.

신제품은 반려동물을 키우는 고객들을 위한 핏 기능까지 강화했다.

/김승호 기자